

'3퇴'와 평안

제 347기 2018년 12월 14일

2018년 12월 10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2,182만 명

미국 국회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중공 박해 폭로에 정계 요인 성원

[명혜망]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12월 4일 오후, 미국 하원은 레이번 빌딩에서 연구토론회를 열어 중공의 인권 폭행 저지를 호소하고, 중국 민중의 중공 당, 단, 대 조직 탈퇴(약칭 '3퇴')를 성원했다. '진(真), 선(善), 인(忍)'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았던 파룬궁 수련생 여러 명이 연구토론회에 출석해 자신들과 가족이 겪은 일을 진술했다.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정계 요인은 연구토론회 출석, 현장 연결,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성원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비법한 용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원 다나 로라바커는 연구토론회 현장에 있던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용기는 언제나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매년 파룬궁 수련생이 캐피톨 힐의 대 집회에 참가할 때 저는 늘 크게 고무되는 것을 느낍니다.", "중공 정권은 중국 민중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와 대립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는 또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세계 평화와 중국 민중의 자유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전 세계 모든 사람, 특히 신앙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구토론회에 출석한 전 세계 탈당 서비스 센터 주석 이릉 여사는 2004년 발표한 <9평 공산당>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미 3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중공의 당, 단, 대



2018년 12월 4일, 미국 하원은 레이번 빌딩에서 연구토론회를 열어 중공의 인권 폭행 저지를 호소하고, 중국 민중의 중공 탈퇴를 성원했다

조직 탈퇴성명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국회의원 로라 바커가 발기한 제932호 결의안은 중국의 '3퇴' 열풍을 성원하고, 파룬궁 수련생 박해의 즉각 중지를 중공에 요구했다.

미국 국회의원 스미스는 성원 편지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19년 동안 벌여온 박해가 중국 근대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이번의 잔인한 박해에 대한 응답으로써 수백 수천만 명이 중공을 탈퇴해 신이 부여한 인간의 양심을 되살렸습니다."

퇴직한 현(縣) 경제위 주임, "3퇴" 후에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

'3퇴'하여 행운을 만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사례가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퇴직한 현(縣) 경제위 주임, "3퇴" 후에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

[대륙 투고] 11월 21일, 나는 공원에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리다가 간부로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원래 모 현의 경제위 주임이었다. 나는 그에게 '텐안면 분신자살'이 조작극이며,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팔아 돈을 번다는 등의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복도에 놓인 파룬궁 자료를 봐서 파룬궁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건 알았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상세하고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또 말했다. "공산당은 여태까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였어요."

내가 그에게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려고 권하자 그가 말했다. "나는 3년 전에 탈퇴했어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 탈퇴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으로 탈퇴시켰죠. 우리 온 식구 네 명이 모두 탈퇴했어요. 나는 탈당을 했고, 아들은 공청단, 아내와 며느리는 소선대에서 탈퇴했어요." 내가 말했다. "정말 잘됐네요. 집안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당신 말이 맞아요. '3퇴' 후에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정말 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앓았던 뇌혈전이 지금 완전히 나은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 온 얼굴에 혈색이 돌고, 신체와 정신이 아주 좋아요. 둘째는 우리 아들이 연구생 졸업 후에 계속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공청단 탈퇴 후에 아주 쉽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 며느리가 소선대 탈퇴 후에 임신을 하고 순조롭게 온 집안이 오랫동안 바랐던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우리 손자는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자랐어요. 또 작년에 내가 우리 성도에서 집을 사는 것도 아주 순조로워서 주택을 샀는데, 위치, 면적, 층수가 모두 아주 좋았어요. 당시 평방미터에 7,500위안을 줬는데, 듣기로는 올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평방미터당 9,000위안으로 올랐어요." 내가 말했다. "정말 복을 받으셨는데, 파룬궁이 도와준 거네요." 그는 웃었다.

촌서기가 '3퇴'하여 복을 받다

[지린 투고] 한 촌서기는 현지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우리 집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할 때 나는 끈기 있게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가 제기한 파룬궁 문제에 해답해주었다. 그는 점점 진상을 깨닫고 '3퇴'

에도 동의했다. 얼마 뒤에 그는 나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평안 무사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날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차를 몰다가 길가에 나무 두 그루가 사람처럼 서있는 것을 발견했고, 단번에 나무를 들이받았다. 차의 앞부분은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핸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끼인데다 차는 뒤집어져 길가의 깊은 도랑에 빠졌다. 양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백 위안짜리 지폐가 밖으로 날려 길바닥이 온통 지폐로 덮였다. 주민들이 달려와 돈을 주웠는데, 그들은 차가 완전히 망가져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어디에서 나온 힘인지도 모르게 핸들을 제치고 가슴을 빼내어 차에서 기어 나왔다고 했다. 주민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사람이 기어 나와 천천히 일어섰고, 몸도 다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페나 갈비뼈가 부스러졌을 텐데, 핸들까지 비뚤어졌는데도 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파룬궁에 감사를 표했다.

그때부터 그는 나를 아주 공손하게 대했다. 그해 그는 끝이 여물고 단맛이 나는 옥수수 품종을 아주 많이 심었는데, 나에게도 한 자루를 실어다주었다.

지린의 전 610 사무실 두목이 탈당하다

[명혜망] 2018년 8월 15일, 한국에 있는 ‘네’ 씨 성을 가진 한 여사가 지린의 어느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중공의 불법기관)’ 전 두목 뉘 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여사: 받으신 전화가 XXX번 맞죠? 당신은 아직도 610에 있나요?

전 610 두목: 저는 거기에서 일을 안 하고, 벌써 퇴직한 지 2년 됐어요.

네 여사: 퇴직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복이에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당신은 아세요? 지린성 610 주임 쑨형산(孙恒山)은 6월 8일, 부하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었어요. 쑤룽(苏荣) 아세요? 또 왕민(王珉), 텐쉐런(田学仁), 왕윈쿤(王云坤), 쑨정차이(孙政才)같은 사람도 모두 낙마했어요. 쑤룽은 원래 중공 제12기 정협 부주석이였잖아요? 지린 610 조장이었는데, 2017년 1월에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전 610 두목(탄식하며): 쑨정차이도 내려오고, 이 사람들도 낙마했다는데, 모두 내려왔나요?

네 여사: 그럼요. 사실은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운이 없고, 끌려가서 희생당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체제 내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는 거라고.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살아 있는 증인이 돼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증언할 수 있어요.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모두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전 610 두목: 아, 그러네요. 상대는 십여 분 동안 들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네 여사: 선양의 전 사법국 국장은 한광성(韩广生)이라는 사람인데, 임기 중에 파룬궁 수련생 백여 명을 (석방해) 귀가시켰어요. 게다가 그는 실명으로 탈당을 하고, 중공을 떠나 해외로 갔는데, 국제사회가 그를 아주 환영했어요. 호주 전 중공 외교관 천용린(陈用林)이라는 사람도 실명으로 탈당을 했어요. 텐진 610 직원 하오핑쥘(郝凤军)도 실명으로 탈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모두 중공을 떠났어요. 높은 관리는 현재 모두 알아요. 여러분같이 낮은 관리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퇴로를 남기지 않을 건가요? 당신은 지금 집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으니 복도 있어요. 그럼, ‘뉘가오푸’라는 가명으로 중공(당, 단, 대)을 탈퇴시켜 드릴 텐데, 어때요? 전 610 주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텐안먼 분신자살’은 조작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둥은 꼼짝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중공은 인권 악화를 초래한 원흉

[명혜망]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세계인권 선언>을 통과시켰고, 1950년부터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정했다. 올해는 제68차 세계인권의 날을 맞는 해다.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계속 악화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9년 동안, 인권 불량배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공 범죄 집단은 파룬궁 박해 초기부터 “명예상으로 매장하고, 경제적으로 단절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 죽었으면 그만이고, 때려 죽었으면 자살로 친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는 멸절 정책을 실시했다. 약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모욕을 당하고 장기간 감시를 당했으며, 수백만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 감금, 노고, 판결을 당하고 세뇌반에 갇혔다. 심지어 고문으로 사망하거나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했으며, 수백만 가정이 박해를 받아 산산이 흩어져 집과 가족을 잃었다!

명혜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은 837명이며, 불법 법정심문은 805차례에 달한다. 11월 9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각 구와 현, 그리고 다칭시에서 119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를 당했는데, 이번 납치는 헤이룽장성 공, 검, 법, 사 부문의 오랜 음모였다. 경찰은 명단을 들고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서 그들을 납치했다.

중공은 약 20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명혜망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 약 21만 명이 장쩌민을 고소했고, 국제사회의 정의인사 288만 명이 서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했다. 3억 2천여만 민중은 중공을 포기하고 중공 사악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포위 토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 정권은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비바람 속에서 최후의 저항을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하고 있으며, 철저한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02년부터 미국 국회는 잇달아 ‘188호’, ‘304호’, ‘605호’, 그리고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 중지를 중공에 요구했다. 2016년 9월 12일,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유럽의회 슐츠 의장은 유럽연합에 대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48호 서면 성명을 선포했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호주 등의 많은 서방 국가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악행을 강력하게 질책했으며, 파룬궁 박해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고,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중공의 반인류 범죄행위 저지를 요구했다.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악령’으로, 그것은 ‘증오’와 우주 저층의 부패물질로 이뤄졌다. 그 악령은 인류를 혐오하며 인류를 파멸시키려 한다.”

중공은 인권 악화의 진정한 원흉이다. 오직 중공을 해체해야만 인권 악화의 근본 경로가 해결된다.